

주의 수난 성지 주일

제1독서 : 이사50,4-7

제2독서 : 필립2,6-11

복음 : 마르14,1-15,47

# 숲 정이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르 14,36).

## 강론

## 소리

### 나의 배역은?

오성기 신부/사회복지 사목

우리는 이제 성주간의 거룩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성주간이면 유럽에서는 여러 마을에서 수난극이 공연됩니다. 독일의 오베람페르가 마을의 수난극은 특히 유명하답니다.

350년 전부터 10년마다 한번씩 이 연극을 하는데 온 마을사람 700여명이 다 같이 배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성주간이면 전유럽에서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열두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따로 뽑고, 누구는 빌라도 총독을 하고, 몇은 대제관 노릇을 하고, 젊은이들은 로마 군인들이 되어 갑옷을 입고 창칼을 듭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배역을 맡는 사람은 일년 전에 미리 뽑아서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품행이 단정하고 용모가 깨끗하고 신심이 돈독한 신자가 뽑히겠지요. 이런저런 배역도 맡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군중이 되어 “호산나,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본당에서 이런 연극을 한다면 교우 여러분께서는 무슨 배역을 맡고 싶으신가요? 오늘 독서자들이 나누어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속에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훌륭한 책인 이유는, 시대를 뛰어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얼굴과 심경과 행실을 성경에서 거울처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태도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이 세속적인 것을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우리들 때문에 더욱 상처를 입으십니다.

성주간을 다시 맞이한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배척하는 우리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그분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점점 커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활절을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흥겹지 않은 봄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지러울 뿐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민초들로선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것이다.

일반전화 2만6천여 회선을 포함해 32만여 회선이 불통돼 전국의 정보통신망 마비사태를 일으켰던 한국통신 서울중로 5가 지하통신구 화재사건.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될 것이다”는 북측의 폭언과 함께 결렬된 남북한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회담.

내신성적 조작, 찬조금 갈취 등 사회 전체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은 서울 상문고 비리사건 등, 바람이 싱그럽고 꽃향기가 더욱 짙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계절은 분명 봄인데 흥겹지가 않다.

내년부터 호랑이 뼈의 국내 판매가 금지되고 코뿔소의 불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영국여왕 부군인 필립공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제자연보호기금(WWF)은 한국이 코뿔소 뼈와 호랑이 뼈를 한약재로 불법거래하고 있다며 미국에 통상 제재조치를 요구한 결과인 것 같다.

대만 정부도 지난해 연말때 뉴욕 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내서 코뿔소 뼈이나 호랑이 뼈를 한약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미국 내 환경단체들을 달랬다.

몸에 좋다면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결코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나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 숲정이 산책



악에서 구하소서.

#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을 위하여

## 1. 사회와 교회의 장래인 가정

가정은 생명에 봉사하며 지속적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향상시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모든 가치들—사랑과 정의, 생명과 인권 존중, 자연과 환경 보호 등—이 가정에서 솟아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를 건설하며, 교회는 성사로서 태어난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새 세대로 들어가고 새 세대는 교회로 들어옵니다(가정 공동체 15항). 이처럼 사회와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가정문제는 인류의 근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 변화하는 사회와 가정

오늘날 가정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여성의 지위 향상, 책임있는 출산과 자녀 교육 등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혼, 인공 피임과 불임 수술, 낙태, 가정 내 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조 저변에는 왜곡된 자유 관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이라 할 생명의 경시풍조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 침해는 곧바로 가정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갖 문제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로 모든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3. 건전한 가정 공동체를 위한 정부의 노력

오늘의 제도와 법률은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법의 근본 정신과 자연법을 벗어나 가정과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문제에 대한 최우선의 과제는 올바른 가정 보호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법률, 경제, 노동과 고용, 세금, 교육, 사회 복지 등에 관한 정책이 인간의 기본권과 가정 복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자 보건법의 독소 조항(14조)의 폐지와 형법 개정안 제135조의 삭제, 배자복제(胚子複製)나 인공수정 등과 같은 인공 조작은 인간 존엄과 생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또한 경제 개발 중심의 정부 인구 조절 시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 4. 가정을 위한 사회의 의식 변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하시면서, 가정이 바로 사회개혁의 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민주 시민으로 훈련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교 교육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전인 교육으로 마땅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가정 경제의 원만한 운영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며, 가정의 목적과 친교에 위배되는 일을 기획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특히 대중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 5. 그리스도인의 과제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여 함께 기도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은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본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성사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가정과 사회, 교회의 협력 하에 혼인 준비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결혼에 근거한 가정이 인간 사회의 근본(백주년 39항)임을 거듭 강조하시며, 진리의 재발견과 선포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가정에 관한 교회 문헌들, 특히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과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를 읽고 실천함으로써 가정에 관한 진리를 더욱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가정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당 사목자들은 물론이고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 사목에 투신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참다운 진리에 입각하여 가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 교회와 정부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금년 '세계 가정의 해'가 은총의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투신해야겠습니다.

가정생활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의 전구하심으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994. 3. 19. 성요셉 대축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 신부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 미용실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역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 한국 최고의 유행수질 전주 송산 온천

최대의 시설, 신비의 모래찜

국장호(요셉)

유숙자(수산나)

☎ 88-0887, 88-0888

5분 교리 44

지옥-자신의 선택?

악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선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정도는 믿지 않는 이들도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여행했다. 마침 지옥의 식사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팔보다 훨씬 긴 젓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젓가락을 입에 넣으려 해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 한다. 음식이 상에 차려져 있어도 먹을 수 없어 굶주려야 하는 고통,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게로구나 하고 물려 나와 천국으로 인도되었다. 천국에도 역시 긴 젓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긴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입에다 음식을 넣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서 팔을 안으로만 굽히면 지옥이고, 팔을 펴서 베풀면 천국이 이뤄진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과 천국에 대해 말씀한 바 있다. 지상에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가리라 했고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마태 25장) 그리고 보면 지옥과 천국은 이미 지상에서부터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지옥에 가도록 하느님이 예정해 둔 사람은 없다. 사람이 알면서 중대한 죄를 짓고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간다. 하느님을 즐겨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그는 돌아서서 하느님을 찾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지옥은 그가 선택한 것이고 순전히 자기 자유의지로 인한 결과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인간 관계 안에서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하느님은 결코 인간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마치 고속도로 길목에 숨어 있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를 잡는 경찰처럼 우리 잘못을 잡는 분이 아니시다. 말하자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지옥에 가도록 함정을 파 놓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몇 번이고 타이르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지옥벌을 두려워하기보다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지옥은 우리와 관계없는 곳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스크루지(VHS 102분) 피고인 석의 하느님(VHS 28분)**

교구 소식

- 1. 이병호 주교님 성심 4주년 : 4월3일(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이병호 주교님 성삼일 전례 일정

성유 축성미사	3월31일(성목요일)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만찬미사	〃	오후 7시30분	인후동 성당
십자가의 길	4월 1일(성금요일)	오후3시	치명자산
수난예절	〃	오후 7시30분	중앙 성당
부활 성야미사	4월 2일(성토요일)	오후11시30분	중앙 성당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4월 3일	오전10시30분	금암 성당

- 3.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 : 4월1일(성금요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4. 가톨릭 문우회 : 4월2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 5. 성모의 기사회 : 4월2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 4월10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0652)252-3398  
서울 성가소비녀회 : 수시로 성소 상담 (0652)223-382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긴장 해소법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관련된 병들이 현대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깊은 호흡과 명상은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업·사업 희망 교우 환영  
**(주)웅진인삼 772지부**  
장래삼골드(허약체질, 숙취, 피로),  
웅진푸룬(칼슘, 철분함유, 천연과즙농축액, 빈혈, 변비, 아기이유식), 타히보차, 로얄톤, 스크알렌  
탁 경 회(울리안나)  
☎ 231-4662~3

**활 티 생 수**  
정주교구 미원성당 샘물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군산(0654) 64-4481

꽃꽂이·신부부케 전문  
**백 제 꽃 시장**  
서 은 석(필립보)  
양 소 은(데레사)  
☎ 78-2002, 253-2628



**주방 직원 구함**  
· 자격 : 50세미만 영세한 지 3년 이상(○명)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제출마감 : 1994년 4월 6일  
· 면접일자 : 1994년 4월 7일  
전주교구청 사무처 ☎85-0041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프스)  
☎ 88-7717~8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주의 수난 성지주일(공동 2차 헌금 있음)  
 1. 판공 일절: 29일-중노4, 인후1구역, 30일-인후역, 기타구역(손님신부님) 후 3시~5시 미사 전후, 2. 부활절 이후의 성가 발표회: 3일 장엄미사 후, 많은 참여바람. 3. 성당 대청소: 29일 어머니미사 후(청소도구 지참) 4. 성삼일 예절 안내: ①성 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세족례)-저녁 8시 ②성 금요일-십자가의 길(후 3시) 십자가 경배-저녁 8시(성지복구를 위한 헌금) ③부활성야-저녁 8시30, 어린이미사 없음. 5. 부활 대축일 미사: 새벽 5시30, 전 10시, 후 5시(초초고 미사) 6. 27일부터 성주간 시작: 미사에 성주간 책 지참. 7. 3일(부활 대축일): 소양성전 건물을 위한 2차 헌금. 8. 사랑의 성금: 누계-1,900,000만원. 9. 모임: 빈철푼수(31일 전 10시30분) 10. 금주 청소: 중노2,3반. 차주 청소: 중노4,5반.  
 ☐ 지난해 봉헌금: 1,125,580원 ☐ 교무금: 2,23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주의 수난 성지주일: 2차 헌금 오늘 있습니다.  
 2. 성주간 전례: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3. 예수 부활 대축일: 4월3일(목), 알렐루야!  
 4. 사순절 저금통: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5. 회합: ①대건회-3일 공식미사 후 ②사목회-3일 저녁미사 후  
 ☐ 지난해 봉헌금: 681,630원 ☐ 교무금: 1,078,600원

**\* 삼천동** 사제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김진룡  
 사목회장

◎ 오늘은 성지주일입니다.  
 1. 성주간 안내(일상미사는 없습니다) 3월31일(목): 주의 만찬미사(오후 8시 이후 성체초배) 4월1일(금): 십자가의 길(오후 4시) 주의 수난예식(오후 8시) 4월2일(토): 부활 성야미사(저녁 11시) 4월3일(일): 부활주일미사(오전 6시, 10시, 저녁 7시30분)  
 2. 화상미사: 성주간에는 없습니다.  
 초등부: 토요일 3시교리, 4시미사  
 중등부: 토요일 4시교리, 5시미사  
 3. 부활맞이 고해성사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4. 환자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4월 8일 오후 1시부터 방문)  
 ☐ 지난해 봉헌금: 616,190원 ☐ 교무금: 1,265,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사랑의 공동교구 2차 헌금.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2일(토) 저녁 8시 ②성금요일, 십자가의 길-1일 오후 3시(치명자산)-단식과 금육 ③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및 성찬식-2일 저녁 8시(성지복구 헌금) ④성토요일 부활 성야미사-2일 저녁 10시 ⑤부활 대축일-오전 10시30분, 오후 3시(초등부)-은총시장.  
 2. 부활절 특별 감사헌금: 정성껏 봉헌합니다.  
 3. 불타이 산행: 5일(화) 충북 보은 속리산(범주사)  
 4. 금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5. 제대꽃 봉헌: 양수환-5만원, 최상욱-3만, 안복순, 유춘원, 강순옥-2만.  
 ☐ 지난해 봉헌금: 632,300(156,430) ☐ 교무금: 37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사목회장 민병부

◎ 주의 수난 성지주일!(오늘 사순절 공동 헌금 있음)  
 1. 성삼일 예절 안내: 성목요일-주의 만찬미사 오후 8시, 성금요일-단식, 금육 오후 8시, 성토요일-오후 9시, 부활 대축일-새벽 6시, 오전 10시30분, 오후 4시(어린이, 중고학생미사) 2. 성전 보수헌금 십입하신 분: 김경수, 김영연, 남태관, 강병동, 이동재, 이계호 6명 각 100만원, 익명 100만원, 윤수철 60만원, 강문식, 장병순, 김중국, 이상수, 박종철, 천윤희 6명 각 50만원, 익명 50만원, 장경순 40만원, 박종갑 30만원, 익명 30만원, 박유근, 김권우, 김판례, 이화춘, 박복희 5명 각 20만원, 유영천 15만원, 한순애, 이원석, 임원자, 박정희, 김용수 5명 각 10만원, 양양순 6만원, 장필남, 고순영, 조정성 3명 각 5만원, 박설섭 3만원, 김경수 2만원, 황계대주원 2백만원, 꾸리아 100만원, 성모회 50만원, 의덕의 거울Pr 50만원, 최인의 의탁Pr 10만원, 6만 반원일동 10만원, 신인종액 54,060,000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주의 수난 성지주일  
 1. 요셉, 사라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 2시, 3. 부활맞이 대청소: 3월30일(수) 오전 10시.

4. 성주간 전례: 성목요일 3.31-오후 8시, 십자가의 길 4.1-오후 3시, 성금요일 전례-오후 8시, 부활전야미사 4.2-(토) 오후 8시, \*부활 대축일미사 4.3-10시, 저녁 7시30분.  
 5. 유아세례: 4월3일 오전 9시30분, \* 청소봉사: 5구역3,4,5  
 6. 부활대축일 나눔제: 많은 참여바랍니다.  
 7. 구두담이에 협조해준 신학생 신부님, 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입금액 292,800원)  
 ☐ 지난해 봉헌금: 610,700원 ☐ 교무금: 1,883,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원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현

◎ 주의 수난 성지주일  
 1. 금주: ①불우이웃돕기 사순절 공동 2차헌금 ②충연관 개관식(공식미사 후) ③차량 축성식(공식미사 후) ④성마리아Co(후2시)  
 2. 영세식: 2일 부활성야미사(오후 8시) 집중교리: 28일~31일 오후 8시, 번달: 28~30일, 오전 10시~12, 오후 2시~5시  
 3. 성유 축성미사: 31일(목) 오전 10시30분 중앙 성당, 4. 성주간 전례: 31일 주의 만찬(세족례)-오후 8시, 4월1일 주의 수난(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기도와 헌금)-오후 8시, 2일 부활성야미사-오후 8시, 5. 성가정회: 4월1일(금) 오전 11시, 6. 차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계속골라형제회(후 1시30분) 6. 감사합니다: 충연관 비봉헌금(일백만원, 오·김 부부)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삼근

◎ 사람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 "고통받는 가정을 위하여"  
 1. 성주간 전례 안내: ①성 목요일-성유 축성미사-전 10시 중앙 성당, 주의 만찬 및 세족례-저녁 8시 사랑의 헌금 밤샘 성체초배 ②성 금요일-십자가의 길 후 3시, 주의 수난 전례 밤 8시 ③부활 전야 밤 9시 미사, 다음날 새벽미사 없음.  
 2. 어르신크린 하투 피정(성모회): 29일 전 10시~후 3시 친원.  
 3. 부활계란: 반별로 한 판씩, 부활 밤 8시까지 봉헌.  
 4. 부활절 미사 안내: 전 9시, 10시30분, 후 3시, 저녁 7시30분, 부활기념 식사대회: Pr별 1개조 4명, 참가비-2천원.  
 5. 병자 봉성체: 28일 후 3시, 접수바람, 6. 유아세례: 2일.  
 7.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8. 보충 판공성사: 30일 미사 전후  
 ☐ 지난해 봉헌금: 978,120원 ☐ 교무금: 1,467,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AX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 성삼일 전례에 온 가족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오늘: 구역장 율레하-미사 후, 아치에스 행사-오후 3시, 사랑의 나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부활 판공성사를 30일(수)까지로 마칩니다.  
 3. 성주간 전례 안내: 주의 만찬(성목요일)-오후 7시30분, 주의 수난(성금요일)-오후 7시30분, 부활성야-오후 10시(중고생까지: 학생미사 없음)  
 4. 9일기도: 비사별; 거성그린1.  
 5. 다음주: 꾸리아-미사 후, 사목회-오후 8시30분.  
 6. 4월4일부터 오늘 새벽미사는 오전 6시30로 시간을 옮깁니다.  
 7. 금주 전례: 김경숙, 정준성, 독서·봉헌·안내·청소: 금하 차주 전례: 장병순, 손금구, 독서·봉헌·안내·청소: 화산2  
 ☐ 지난해 봉헌금: 699,390원 ☐ 교무금: 1,631,000원 (B)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송영진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사순절 공동 2차 헌금 있음)  
 1. 유아세례: 오늘 오후 4시, 2. 애경회: 오늘 11시미사 후(교육관) 3. 꾸리아: 30일(수) 오전 10시, 4. 꾸리아: 30일(수) 오전 10시, 5. 성모기사회: 4월2일(토) 오전 10시, 6. 안나회: 4월10일(일) 11시 미사 후(교육관)  
 \*에비자 교리시간: 일요일-9시30분, 수요일-오후 8시, 목요일-오전 10시, 금요일-오전 10시, 토요일-오후 6시(학생반)(에비자 인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주간 예절과 부활성야 안내는 별지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4월1일(주의 수난 성금요일)은 성지 복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지난해 봉헌금: 1,209,780원 ☐ 교무금: 3,129,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우전 신용협동조합 창립 총회: 공식미사 후.  
 2. 오늘 사순절 공동 2차헌금이 있습니다.  
 3. 모임 안내: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요셉회, 성소후원회-신협창립총회 후 ③빈철푼수회-23일 오전 9시30분.  
 4. 다음주는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를 접수합니다.  
 5. 성주간 예절: 성목요일 저녁 8시-취후만찬, 성금요일 오후 3시-십자가의 길, 저녁 8시-수난예절, 성토요일 저녁 8시-성야미사 \*성주간 전례에 빠짐없이 전신자 참여합니다. 차주 모임-공식미사 후 나눔의 잔치, 꾸리아, 임시 사목회, 여성분과, 금주 전례: 해설-이진태, 독서①조세환 ②육영숙, 봉헌-배종교 부부  
 차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김상권 ②이병희, 봉헌-전형섭 부부